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민영현  
전화 053-740-4230 / 팩스 0502-193-5504

**보도자료**  
**2024. 4. 15.(월)**

제목

# 멕시코發 한국 경유 화물선에 은닉된 코카인 28.43kg 밀수사건 중간수사결과

## 공개의 요건 및 범위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재만)는 관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2024. 4. 5. 울산 온산항에 정박 중인 멕시코發 2만5,000톤급 화물선의 씨체스트(Sea Chest)\*에서 코카인 28.43kg(약 94만명 동시투약분, 시가 약 142억원 상당)을 발견하여 압수하고, 미국 마약단속국(DEA)와 공조하여 코카인 밀수 경로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임

\* 씨체스트: 배 균형을 잡거나 냉각수 용도 해수가 유입되는 통로, 바닷물에 잠겨있는 부분

● 검찰은 화물선 내외부를 수색하고, 탑승 중이던 다국적 선원 19명의 휴대전화, 화물선 내 CCTV, 입출항경로 등 관련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분석중임

- 현재까지 수사 결과, 코카인은 2023년 화물선에 은닉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승선한 선원들이 코카인 밀수에 관여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음

● 검찰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하여 코카인 밀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국내·외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밀수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 1

### 사건 개요

- '24. 4. 5.경 울산 온산항에 기항 중이던 2만 5,000톤급 화물선의 선저(船底) 씨체스트(Sea Chest) 안에서 코카인이 담긴 검은색 가방 발견
  - ※ 화물선은 아연·납 광석을 운반하는 싱가포르 선적 화물선으로서 3. 4. 멕시코 만사니요항을 출발한 후 3. 16.~19. 캐나다 밴쿠버항을 경유하여 4. 5. 한국 울산 온산항에 도착, 이후 일본을 거쳐 뉴질랜드에 입항할 예정이었음
- 코카인은 1kg씩 소분하여 28개 블록 형태로 포장되어 있었고, 2개의 블록 안에서는 코카인을 은닉하면서 매립·설치한 GPS 위치추적장치가 발견

## 2

### 주요 수사 경과

- '24. 4. 5. 화물선 입항
- '24. 4. 6. 잠수부, 씨체스트에 붙은 따개비 제거작업 중 이상물체 발견신고
  - ⇒ 대구본부세관, 물체 개장하여 간이시약 검사(코카인 양성)
  - ⇒ 대구지검, 수사착수(코카인 및 선원 휴대전화 긴급압수, 선체 수색)
- '24. 4. 7.~12. 대구지검, 관련자 조사 등 수사
  - 신고자 및 6개 국적의 선장·선원 19명 조사, 31대 휴대전화 메시지 확인, 긴급 마약류 감정의뢰(코카인 양성 감정), CCTV 영상 확인, 화물선 입출항 경로 분석 등

### 3

## 중간수사결과 및 계획

- 신속하게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승선한 선원들이 본건 코카인 밀반입에 관여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함
  - 선사 측에서 '23. 6. 3. 마지막으로 씨체스트 청소작업을 진행하였던 사실, 압수 당시 GPS 위치추적장치의 배터리가 모두 방전(해당 제품의 배터리 수명은 최장 1년)되어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던 사실, 코카인 가방 표면에 번식하고 있던 딱개비 형상 등을 종합하면,
    - 코카인은 '23년 밀수출을 위해 화물선의 씨체스트에 은닉되었으나 계획대로 회수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방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됨
  - 현재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국제공조를 통해 코카인 밀수 관련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음
- ※ 최근 발생한 다량의 코카인 밀수사건은 한국을 경유한 후 타국으로 출항하려는 선박이나 타국에서 하적하지 못한 화물에서 적발된 사안으로, 실제 목적지가 한국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현재까지 국내 대량 유통의 위험성은 포착되지 아니함
- ▲ '24. 1.경 브라질을 출발하여 싱가포르, 홍콩을 거쳐 부산을 경유한 다음 중국으로 출항하려는 선박에서 코카인 100kg을 적발한 사건
  - ▲ '21. 9.경 페루를 출발하여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일본을 거쳐 부산에 도착한 선박의 이전 경유지에 하적하지 못한 화물에서 코카인 400kg을 적발한 사건
  - ▲ '21. 1.경 콜롬비아를 출발하여 파나마 운하를 거쳐 부산을 경유한 다음 중국, 미국 등으로 출항하려는 선박에서 코카인 35kg을 적발한 사건
  - ▲ '20. 8.경 브라질을 출발하여 싱가포르를 거쳐 부산을 경유한 다음 일본 등으로 출항하려는 선박에서 코카인 47kg을 적발한 사건
- 검찰은 앞으로도 국내외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마약류 밀수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고, 마약류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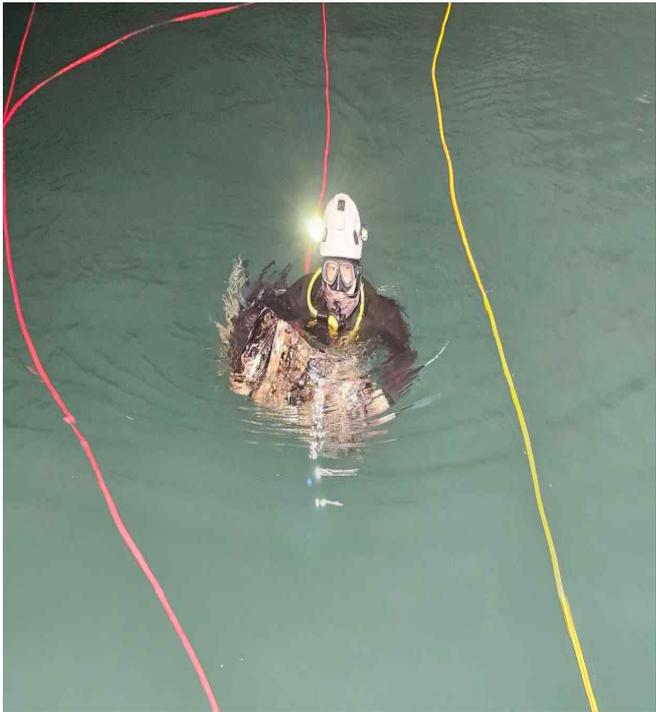
## 압수물 사진



【선박 씨체스트 입구 사진】



【씨체스트 내부에서 발견된 코카인이 든 가방】



【코카인이 든 가방을 잠수부가 인양하는 모습】



【인양된 코카인이 든 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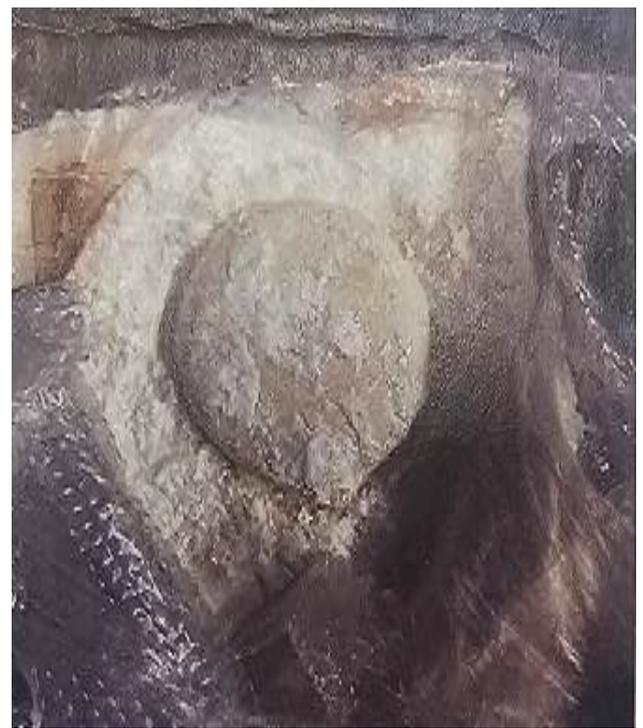
【코카인 블럭 총 28개 무게 총량 28.43kg】



【따개비가 번식한 가방 표면】



【코카인 블럭의 개당 무게 약 1kg】



【코카인 블럭 내부에 있던 GPS 위치추적기】